

ABARES 2017 농업전망: 세계 및 호주 경제 전망*

노 수 정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원)

1. 세계 경제성장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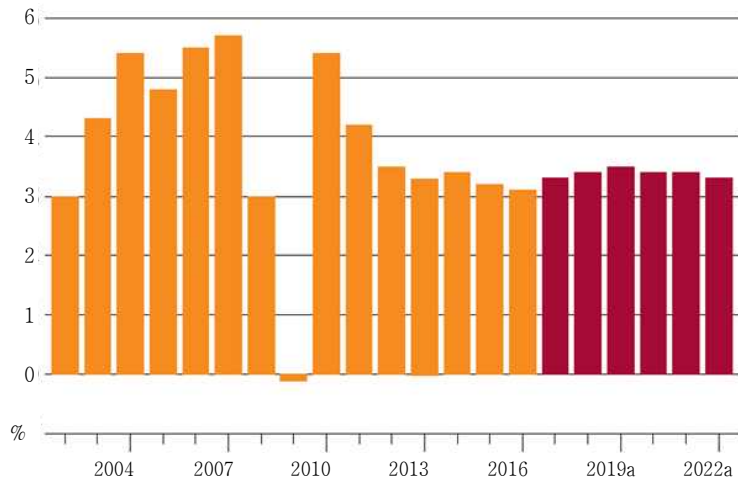
1.1. 2017~2018년

세계 경제성장률은 신흥국의 경제성장에 힘입어 2017년 3.3%에서 2018년 3.4%로 성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2016년에는 최저 경제성장률을 기록했던 2009년 이후 가장 낮은 3.1%를 기록했다. OECD 국가의 평균 GDP 성장률도 2016년 1.6%에서 2017년 1.8%, 2018년 1.9%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비(非) OECD 국가의 GDP 성장률은 2017년 4.4%, 2018년 4.6%로 전망된다. 세계 무역액은 2014년 말에서 2016년 말까지 이어진 유가 하락에 따라 급격히 감소하였으며 러시아연방, 남아메리카, 중동 및 아프리카 국가들이 포함된 비(非) OECD 수출국가의 경제에 큰 영향을 미쳤다. 2017년은 상품 가격 회복으로 무역액이 증가함으로써 신흥 경제국의 경제성장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OPEC 회원국 중 일부는 지난 2017년 석유 생산을 감축하기로 결정했으며 이에 따라 2017년 유가 상승 압력이 예상된다. 중국의 성장 둔화는 세계 경제 전망에 위협요소가 되고 있지만 중국 정부의 경기부양 정책으로 단기간에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새로 출범한 미국 행정부와 영국(브렉시트), 네덜란드, 프랑스, 독일 등 주요 국가의 정치적 변화가 세계 경제 전망에 불확실성을 높이고 있다.

* (nosu303@krei.re.kr). 본고는 호주 농업·수산업·임업분야의 정책연구기관인 호주농업자원경제과학국(Australian Bureau of Agricultural and Resource Economics and Sciences, ABARES)의 2017년 농업 전망을 바탕으로 작성됨.

그림 1.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



주: a는 ABARES 전망치.
자료: ABARES; 국제통화기금.

그림 2. 세계 상품 교역 성장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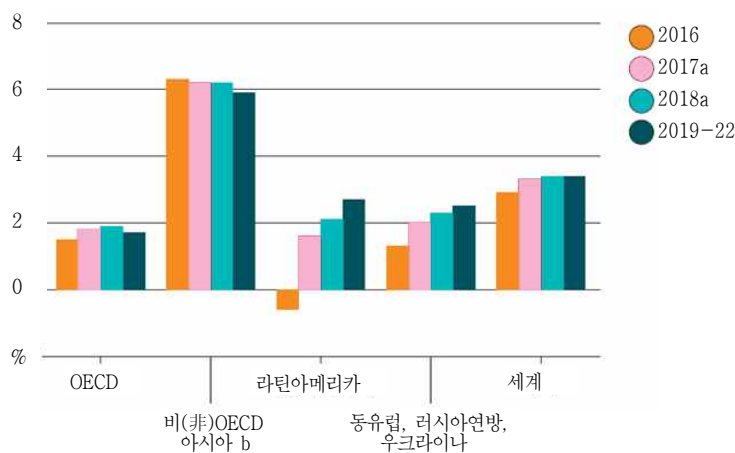


자료: 세계무역기구.

1.2. 2019~2022년

2019년 세계 경제는 신흥시장의 회복에 힘입어 약 3.5% 성장하고, 이 중 OECD 국가의 평균 성장률은 1.8%로 전망된다. 2020~2022년 OECD 국가의 평균 경제 성장률은 1.7%로 추정되며 강세를 보였던 유로존과 일본의 성장은 저조할 것으로 전망된다. 세계 경제성장 동력인 비(非) OECD 국가의 경제성장률은 2019년에 4.7%에서 2020~2022년에는 4.6%로 둔화될 전망이다.

그림 3. 세계 지역별 경제 성장률 전망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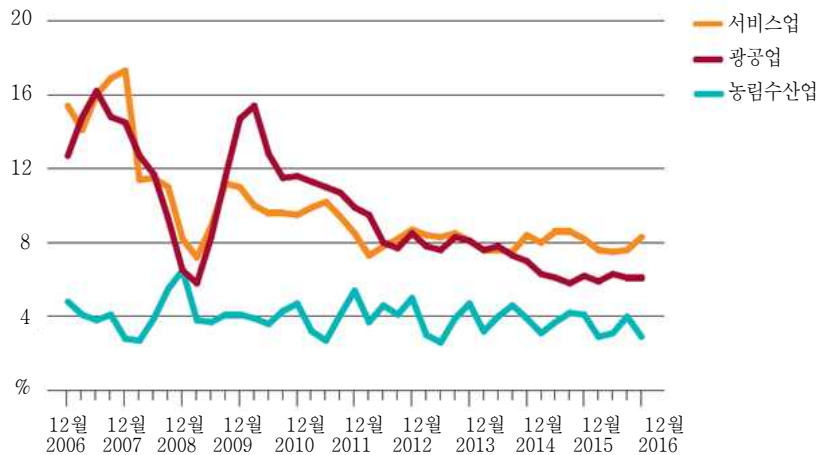
주: a는 ABARES 전망치. b는 중국 포함.
자료: ABARES; 국제통화기금.

2. 호주 주요 교역국의 경제성장 전망

2.1. 중국의 경기둔화

중국의 경제 성장률은 2015년 6.9%에서 2016년 6.7%로 둔화되었고, 2017~2018년에는 각각 6.4%, 6.2%로 낮아져 2022년까지 약 5.6%로 하락할 전망이다. 서비스부문은 2016년에 7.8% 성장하였으나 광공업 생산은 정부의 단기 지원정책에도 불구하고 6.1% 성장하는데 그쳤다. 중국의 단기 경제성장의 위협요인은 주택시장 경기 회복의 불확실성과 재정 부담 증가, 자본유출에 따른 시장변동성 등이다. 중기적으로는 중국의 개혁 어젠다 이행과 높은 부채 비율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경제성장의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그림 4. 중국 산업별 GDP성장률 추이



자료: 중국 국가통계국.

2.2. 미국의 노동시장 개선에 따른 경제 성장

미국의 2016년 경제성장률은 1.6%로 추정되고 중기적으로 완만하게 성장세를 지속하여 2021~2022년 경제성장률은 약 2%로 전망된다. 2016년 미국 경제 성장의 가장 큰 원동력은 민간소비 증가, 노동시장 여건 개선 등이다. 미국 소비자 신뢰지수 향상에 따른 내구재 지출 증가폭이 컸다. 미시간대학교 소비자신뢰지수(The University of Michigan's Index)에 따르면 미국 소비자의 소비심리는 금융위기 이전 수준까지 회복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실업률은 2016년 4.7%로 하락했는데 4/4분기에는 2007년 이후 최저 실업률을 기록했다. 2016년 고용비용지수(임금상승률 추정)는 전년대비 2.2% 증가하여 2008년 이후 최고치를 나타냈다. 미국 달러 강세로 2016년 수출 성장은 저조했으나 실질 무역액은 2015년 10.7%, 2016년 3.9%로 2003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2017/2018년 미국의 수출여건은 미국 달러 강세가 지속되어 어려움이 예상된다. 수출 수요와 원유 가격 하락으로 2016년 제조업 투자는 4.8% 감소한 반면, 광업 투자는 4% 증가했으며 향후 원유가격 상승은 미국 석유 및 가스 산업의 성장을 이끌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사회는 노동시장 강세와 인플레이션 기대에 따라 2016년 12월 공식금리를 0.5~0.75%로 인상시켰다. 또한 미국과 세계 경제 여건 개선에 따라 2017년

내에 추가적인 금리 인상과 중기적인 통화 정책을 강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7년 새로 출범한 미국 행정부는 재정 부양정책을 채택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향후 실제 경제 정책의 방향에는 불확실성이 남아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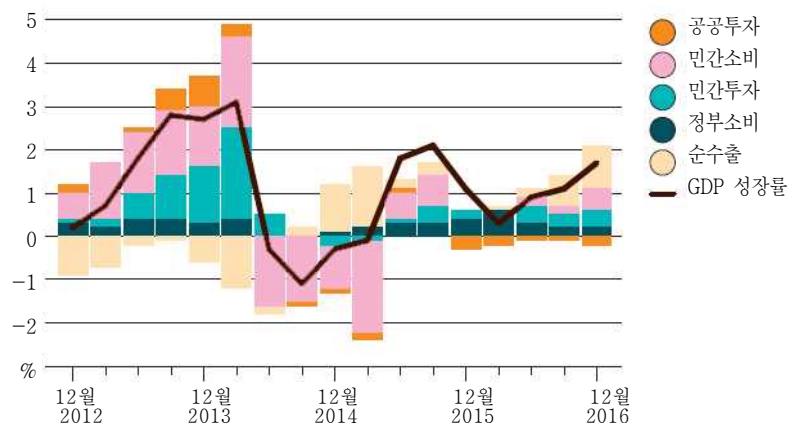
2.3. 일본의 완만한 경제 성장

일본의 2016년 경제성장률은 0.9%였으며 향후에는 2017년 0.6%, 2022년 0.5%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민간소비 증가율은 2016년 0.4%로 지속된 약세를 보였으나 2017~2018년에는 정부의 민간소비 촉진 정책으로 증가폭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 실업률은 2016년 7월에 최근 21년 중 최저치인 3%대로 떨어졌다. 노동인구 참여율도 부분적으로는 추가 복지수당을 포함한 정부 정책(어린이 보육 및 노인 요양 보조금)으로 이전에 비해 증가하였다.

2016년 수출액은 세계 수요 감소와 엔화 강세로 전년대비 7.4% 감소하였다. 그러나 2016년 11~12월 미국 대선과 금리 인상으로 엔화 가치가 다소 하락하여 2017년 일본 수출과 산업 등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 경제는 중기적으로 완만한 성장세가 지속되며 자동차, 컴퓨터 등 고부가가치 부품을 중국 등 아시아 국가들에 수출하여 수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일본의 2019년 소비세 인상 계획으로 2020년 이후 성장에 제한 요인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5. 일본 분야별 GDP 성장 기여도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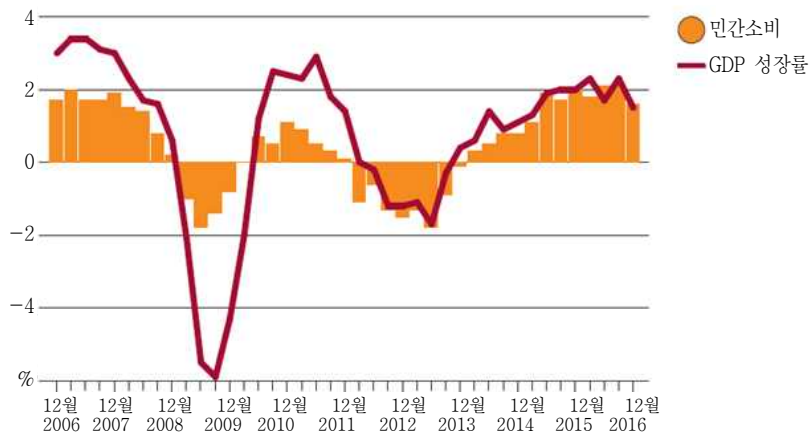


자료: 일본 국무조정실.

2.4. 유로존의 완만한 경제 성장

유로존의 2016년 경제성장률은 1.7%였으며, 향후 2017년 1.5%, 2018~2019년 1.6%, 2021~2022년 1.5% 수준으로 전망된다. 민간소비는 유로존 경제성장의 주요 동력이며 2016년 저금리 및 저유가 기조, 노동시장 강화 등에 따라 2% 성장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림 6. 유로존 민간소비 및 GDP 성장률 추이



자료: Eurostat.

유로존 실업률은 2013년 12%를 기록한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많은 국가들의 실업률은 여전히 금융위기 이전보다 높으며 앞으로도 일정기간 높은 실업률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치적 불확실성과 대내지향적 정책(inward-looking policy) 가능성은 유로존 경제 성장의 위협요인이 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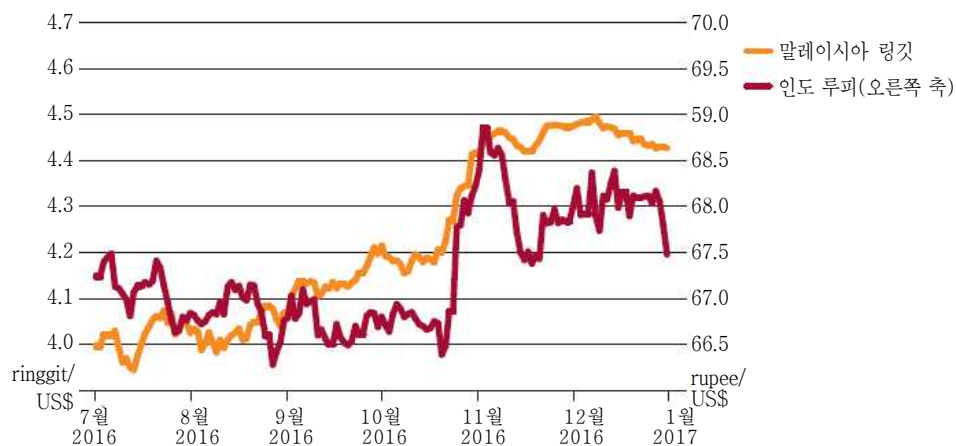
2017년 유로존 경제의 큰 이슈는 네덜란드, 프랑스, 독일에서 치러질 선거와 영국과 EU의 브렉시트(Brexit) 협상 등이다. 브렉시트 협상은 적어도 2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것이며 단기간 민간소비를 위축시키고 영국 및 유럽국가의 투자 증가를 억제시킬 것이나 장기적인 영향은 불확실하다.

중기적으로 통화정책 완화와 노동시장 강화는 유로존 경제성장을 견인하지만, 높은 실업률과 부채, 은행부문의 취약성 등은 경제성장을 제한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

2.5. 비(非) OECD 아시아 국가의 경제 성장

2016년 비(非) OECD 아시아 국가 경제는 세계 경제 성장 둔화와 수출 수요 감소로 완만한 성장을 하는데 그쳤다. 2016년 원자재 가격 개선과 미국 대선 이후 일부 비(非) OECD 아시아 국가의 통화가치 하락으로 수출업체들의 실적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들 국가의 부채 상당 부분이 미국 달러로 표시되므로 통화가치 하락은 부채 관리 비용을 인상시켜 실질적인 경제 성장에 제한적인 요소로 작용하였다.

그림 7. 아시아 국가 환율 변동 추이



자료: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

2.5.1. 동남아시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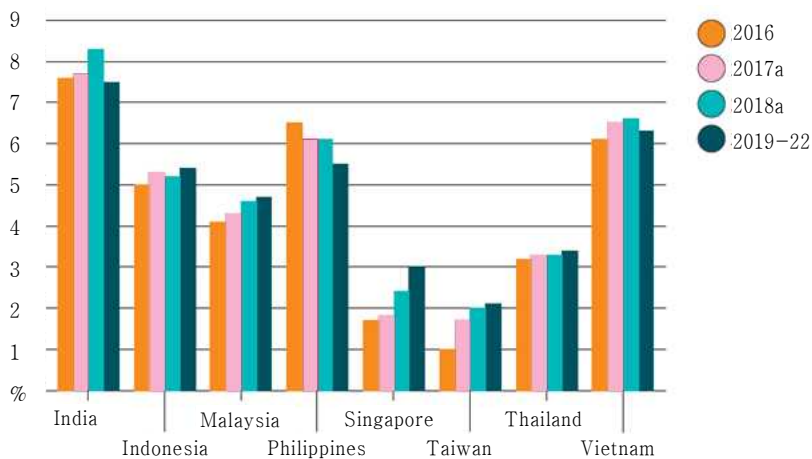
동남아시아의 경제 성장률은 2016년 4.8%로 추정되고 2017년 4.9%, 2018년 5.0%로 성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중기적으로 동남아시아 경제는 국내 수요 증가와 수출의 점진적인 회복에 따라 평균 성장률은 4.9% 수준으로 예상된다.

동남아시아에서 경제규모가 가장 큰 국가인 인도네시아는 정부소비 및 수출 위축에도 불구하고 민간소비와 투자 증가에 힘입어 2016년 4.9% 경제 성장률을 보였다. 2017~2018년은 완화된 통화 정책과 예산 증액으로 경제성장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2.5.2. 인도

인도 경제 성장률은 2016년 7.5%로 추정되며, 2017에도 비슷한 수준으로 전망된다. 인도 정부는 부패와 범죄 방지를 위해 두 종류의 고액 지폐 사용을 중단하고 2016년 말까지 합법적인 통화로 교환해야한다고 발표했다. 지폐는 인도에서 유통되는 현금의 86%를 차지할 만큼 많은 거래에 이용되므로 상품과 서비스 구매에 불편이 예상된다. 중기적으로 인도의 부패 척결과 사업 활성화 정책 추진으로 경제성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 8. 비(非) OECD 아시아 국가 경제 성장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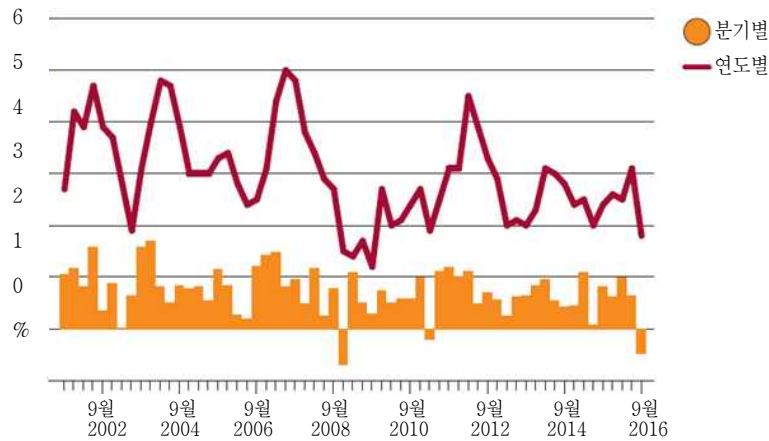
주: a는 ABARES 전망치.

자료: ABARES.

3. 호주 경제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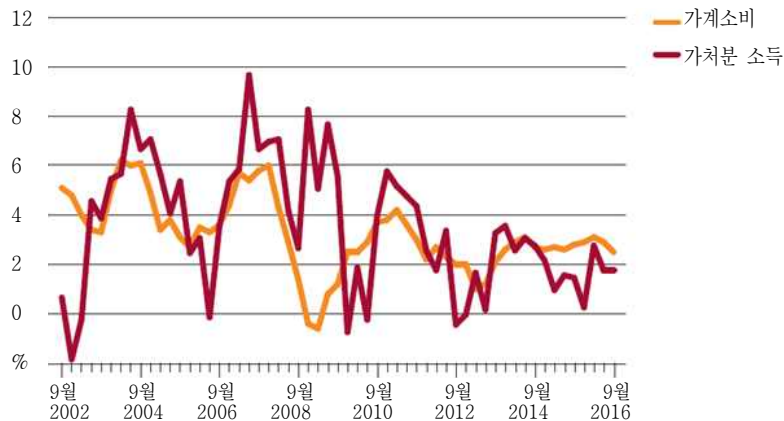
호주의 경제 성장률은 2015~2016년 2.7%에서 2016~2017년 가계 지출 및 순수출 성장률 감소로 다소 둔화되나, 2017~2018년에는 2.8%로 다시 회복될 것으로 전망된다. 2016년 3/4분기 가계 소비 증가율은 전년 동기 대비 2.5% 감소했으며, 특히 내구재 소비 성장이 저조했다.

그림 9. 호주 GDP 성장률 추이



자료: 호주 통계청.

그림 10. 호주 가계소비 및 가처분소득 성장률 추이



자료: 호주 통계청.

주거용 건축은 2017~2018년 경제 성장을 지속적으로 견인하나, 성장 기여도는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비광업 투자는 차입비용이 낮고 경제 성장이 지속되면서 서서히 증가하고 있으나 광업 투자 감소로 GDP 성장률은 둔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호주의 2016~2017년 농산물을 포함한 비광업 수출량은 전년대비 6% 증가하였다. 2017~2018년 수출량은 낮은 호주 달러 가치와 액화천연가스, 철광석 등 천연자원 수출 증가 및 아시아 국가의 수요 증가에 따른 관광, 교육, 제조업, 농업 분야 교역의 활성화에

따라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후 2018~2019년과 2021~2022년 GDP 성장률은 3% 수준으로 전망된다.

그림 11. 호주 광업 및 비광업 수출액 추이



자료: 호주 통계청.

3.1. 소비자물가

호주는 낮은 임금 성장과 소매 분야의 경쟁 촉진, 주택비용 완화 등의 결과로 인플레이션 발생 가능성은 낮으며 이는 2014년 말~2016년 초 국제 유가의 급락 등 세계 경제 변화의 영향을 받고 있다. 2016~2017년 인플레이션율은 1.5%에서 2017~2018년 1.9%, 2018~2019년 2.5%로 전망된다.

3.2. 금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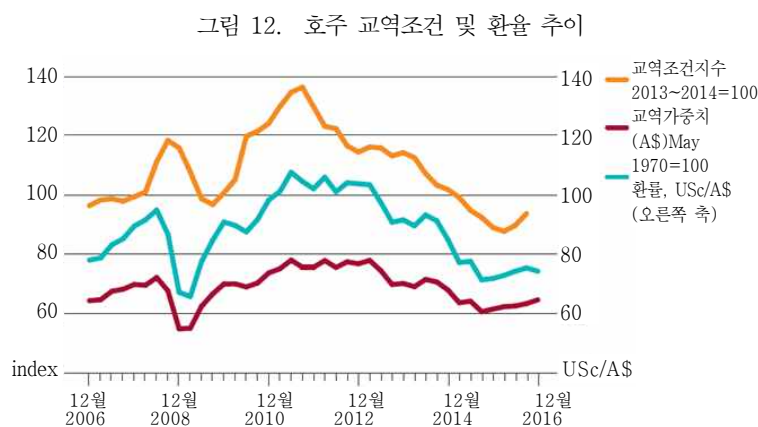
환율은 2016~2017년 평균 0.75US달러/호주달러이고 교역 가중치¹⁾는 64호주달러이며, 2017~2018년 환율 평균 0.73US달러/호주달러, 교역 가중치는 62호주달러로 전망된다. 향후 중기적으로 호주 달러는 평균 0.74US달러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호주의 교역조건(수입가격 대비 수출가격 비율)은 2016년 3/4분기에 전년 동기 대비 4.4% 호전되었다. 석탄, 철광석 등 원자재 가격 상승은 향후 호주의 교역조건을 향상

1) 교역가중치(Trade-weighted index)는 국가별 수출 및 수입 상품의 중요성을 반영하는 통화 바스켓(주요 통화를 가중 평균한 인위적인 국제 통화 단위)의 가중 평균을 나타내며, 이는 국가의 국제 경쟁력을 나타내는 하나의 지표로 사용됨. 양자 환율이 다른 경향을 보일 때 해당 국가 통화 가치를 나타내는 지표임.

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원자재 가격은 중국 등의 탄광 폐쇄로 인한 공급 차질로 생겨 2016~2017년 여러 차례 상승하였다. 2017~2018년에는 일시적으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는 세계 경제의 성장과 안정화로 호주의 교역 조건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의 양호한 경제 상황과 금리 상승은 호주 달러 약세를 야기하고 있으며 향후 추가적인 미국 금리 인상은 호주 달러 가치의 약세를 가속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자료: 호주 통계청, 호주 중앙은행.

표 1. 호주 거시경제 전망

구분	단위	14~15	15~16	16~17a	17~18a	18~19a	19~20a	20~21a	21~22a
경제성장률	%	2.4	2.7	2.0	2.8	3.0	3.0	3.0	3.0
인플레이션율	%	1.7	1.4	1.5	1.9	2.5	2.5	2.5	2.5
이자율 b	% 연간	4.3	4.1	3.9	4.0	4.5	5.5	5.8	6.0
명목환율(US\$/A\$)	US\$	0.84	0.73	0.75	0.73	0.74	0.74	0.74	0.74
교역가중치(A\$) c	지수	67	62	64	62	63	63	63	63

주: a는 ABARES 전망치. b는 미지불 신용에 대한 대기업 가중평균 변동금리. c는 1970년 5월=100 기준.

자료: 호주 통계청, 호주 중앙은행.

3.3. 농수산물 수출

2017~2018년 호주 농산물 생산량은 2016~2017년보다 5.6%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6~2017년은 곡물 및 유지종자 생산량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는 해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평균계절조건을 가정할 때 농업 생산은 향후 서서히 증가하여 2016~2017년 수준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2017~2018년 호주의 농산물 총 수출액은 전년대비 2.8%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동기간 농산물 수출 가격(호주달러 기준)은 양모, 유제품, 설탕, 와인, 양고기, 보리, 유채, 랍스터 등은 상승하고 면화, 병아리콩 가격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세계적으로 2021~2022년에 많은 종류의 농산물 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며 농산물 수출의 수익률도 낮아질 것으로 추정된다.

2017~2018년 호주의 농산물 수출로 인한 수익(earnings)은 약 487억 달러로 2016~2017년 477억 달러보다 2.1%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3.3.1. 곡물

호주의 2017~2018년 곡물 수출에 따른 수익(earnings)은 2016~2017년 268억 달러에서 1.1% 감소한 265억 달러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2016~2017년 양호한 기상여건으로 밀과 보리 생산량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품목별로는 밀의 2017~2018년 수출 수익이 전년보다 9% 감소하고 조곡류 11% 감소, 유채 6% 감소, 병아리콩 42%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설탕 수출 수익은 전년대비 10% 증가하고 면화는 35%, 와인은 5% 각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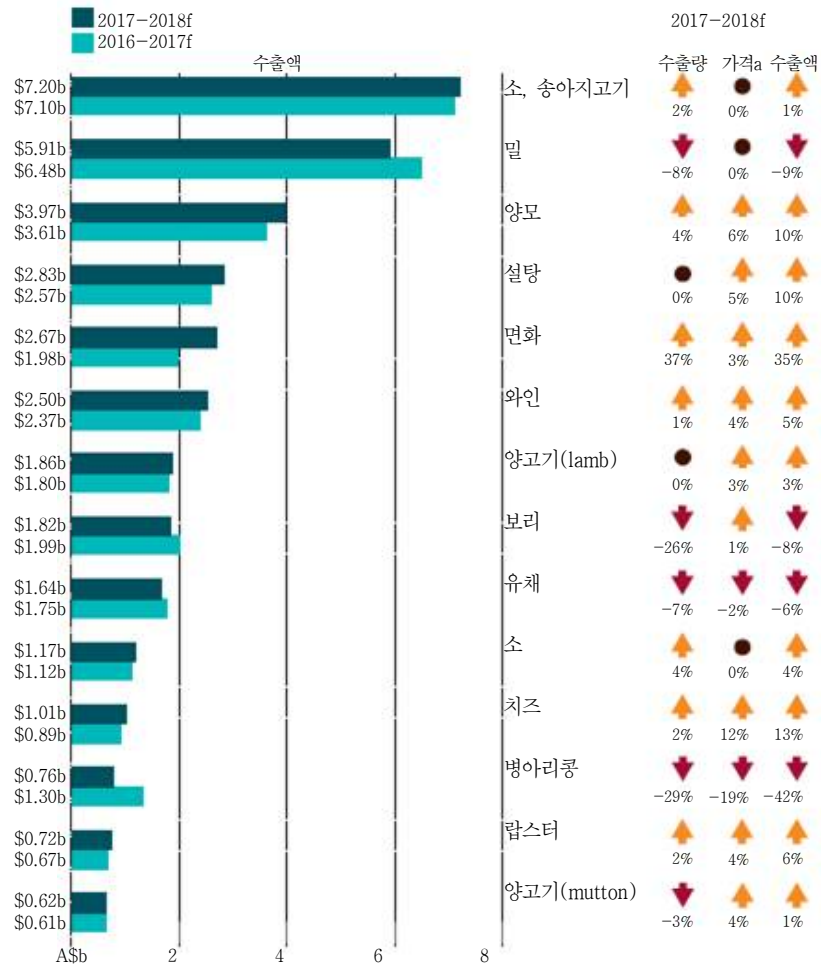
3.3.2. 축산물

축산물 수출로 인한 수익은 2017~2018년 222억 달러로 2016~2017년 209억 달러보다 6.2%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뉴질랜드와 EU의 생산량 감소로 세계 유제품 가격이 상승하고 치즈와 탈지분유 수출액을 증가시켰기 때문이다. 호주의 양모 생산량 증가와 세계적인 수요 증가로 수출액이 늘 것으로 전망된다. 품목별로는 소고기와 송아지고기의 2017~2018년 수출 수익이 전년보다 1% 증가하며, 유제품 11%, 양모 10% 증가, 양고기(lamb)는 3% 각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3.3.3. 수산물

수산물 수출은 2017~2018년 15억 달러로 전년대비 2.3%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의 수요 증가에 따라 랍스터와 참치의 수출 수익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 13. 호주 주요 농수산물 수출 전망



주: f는 ABARES 전망치.
자료: ABARES.

참고문헌

Australian Government Department of Agriculture and Water Resources(ABARES). 2017.
Agricultural commodities: Economic Overview. ABARES.